광주시 '색깔 차별 소비 쿠폰' 행안부도 알고 있었다

광주은행 담당자 행안부 사전 승인절차 거쳐 광주시 결재 받아 발급
광주시·5개 자치단체·행안부 등 공직사회 전반 인권감수성 드러내
윤호중 장관 "국민 인권과 편의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해 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감수성 부족'을 지적한 광주시 소비쿠폰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광주시, 5개 자치단체, 행안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인권감수성이 드러난 것이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 소비쿠폰 담당자가 지난 8일 오후 7시 20분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광주시의 소비쿠폰 시안을 보냈다. 이는 지난 6월 말 광주시 소비쿠폰 담당자들이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와 협의를 거쳐 잠정 확정한 소비쿠폰 카드 디자인 시안이다.

논란이 된 현행 광주시의 소비쿠폰이다. 광주은행은 광주시의 제1금고로 지역화폐 발행을 도맡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 등은 당시 행안부 소득별 3분류 지급계획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쿠폰 색상을 3가지로 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월 초 광주은행은 색깔별 카드 시안을 광주시에 이메일로 전달했고 광주시 담당자는 최종확인했다. 이후 7월 8일 광주은행 측은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시안은 가로형이고 광주시의 시안은 세로형이라는 차이가 있어 세로형도 가능한지 여부를 행안부에 문의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전국 지자체 소비쿠폰 금융사들이 모여있는 '민생지원금 시스템 개발'이라는 SNS 단톡방을 통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시안을 보내주면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광주은행 담당자는 10만원권(하늘색)과 30만원권(노란색)의 색깔이 다른 소비쿠폰 시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담당자가 "지자체(광주시)와 협의후 결정했다"고 답하자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괜찮습니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인 9일 광주은행 측은 광주시에 '소비쿠폰 시안을 행안부에서 승인했다'고 알렸고, 광주시는 지난 15일 소득별로 색깔을 달리한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결재했다.

결국 행안부, 광주시, 5개 지자체가 모두 광주 소비쿠폰이 소득별 색깔 차등을 두고 발급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공식 사과를 했지만, 행안부와 관련 지자체장들은 이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이 광주시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금융사와 공무원들은 "소비쿠폰 준비과정이 너무 짧고 긴박하게 돌아간 탓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광주지역 지역화폐였던 광주상생카드도 금액별로 색깔이 다르게 교부되고 있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장관은 "신청 서류와 지급 수단, 안내·홍보문도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다르게 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 및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데 대한 질타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역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액수별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부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2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이 선불카드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밤샘 스티커 작업' 광주 공무원노조, 강기정 시장에 사과 요구 논란

"수해 복구로 바쁜 직원들 혹사"

소득 수준별로 색깔을 달리한 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해결책인 스티커 부착 작업을 두고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공무원노조)는 24일 논평을 통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민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밤늦게까지 고생한 공직자에게도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6시께 직원들에게 빨간색 스티커를 배부할 테니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작업을 한 직원들은 최근 수해 복구,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밤샘 작업에까지 동원됐다며 광주시 내부 게시판 등에 불만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이 "인권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는 광주시 위상을 훼손하고, 시와 자치구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불만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 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색깔 논란으로 인해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카스트'가 됐다"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비상근무와 수해 복구로도 바쁜 직원들에게 '오늘까지 작업하라'며 혹사시키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민들의 시각은 달랐다. 어차피 광주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건 당연한 일 인데 왜 공무원들끼리 갈라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일부에서도 "광주시 공무원들의 잘못을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북구는 수해 복구와 밤샘 작업으로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치공원 미니골프장 파크골프장 변신

30일 조성계획 변경 건 심의

광주시 북구 생용동 우치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에서 '우치근린공원(생용동 산127-2일원) 조성계획 변경'건이 심의된다.

이번 안건은 우치공원내 조성된 운동시설의 종류 변경 및 폐지, 놀이기구 1개를 철거하는 안이 담겼다.

기존 '미니어취골프장'(5홀)을 파크골프장(9홀)으로 바꾸고, 농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우치근린공원 관리위탁 업체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와 테니스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미니어취골프장과 농구장은 이용객이 극소수여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용자가 적은 '타임머신(순환회전타·놀이기구)'도 철거된다. 변경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거쳤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우치근린 공원의 시설률은 37.2%로 1.09% 감소하고 녹지는 1만 53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내 최대 수중 발굴 전용 바지선 '바다누리호' 취항

목포국립해양유산연구소 취항식
진도·고흥 해역 등서 발굴·조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중 발굴 전용 바지선 '바다누리호'가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4일 목포시 용해동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앞 계류장에서 바다누리호 취항식을 열었다. 이 배는 하반기부터 진도·고흥 등 전국 주요 수중유산 해역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투입된다.

바다누리호는 97t급의 수중 발굴 전용 바지선이다. 길이 19.2m, 너비 18m, 높이 2.3m로, 최대 10명이 승선해 수중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잠수통제실, 공기압축기실, 크레인, 잠수사 승강기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바지선 네 귀퉁이에 32m 길이의 기둥형 다리를 설치해 해저에 고정할 수 있고 유압장치를 통해 상하로 움직이며 파도나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동시에 4명의 잠수사가 수중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상장치를 통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잠수사 승강기도 설치돼 안전한 수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측은 바다누리호가 연간 약 21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수심 20m 내외의 서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된다고 밝혔다. 수중유산이 다수 분포한 충남 태안 마도 해역을 비롯해 진도, 고흥 등 기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들에서 체계적인 발굴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계자는 "바다누리호는 첨단 잠수조사 장비와 잠수사 승강기 설치로 조사원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였다"며 "우리나라 수중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설업등 분할양도양수 및 주권제출공고

드림건설 주식회사(대표 채명순)는 2025년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중 건설업종에 대한 사업부문(토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포장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디앤티건설로 분할 신설하여 양도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며 다음과 같이 상법 제527조의5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표시한 바와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주제위는 분할과 관련된 주권의 분할을 위하여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분할(양도)할 건설업 등의 종류 : 토공사업(등록번호 : 광주남 2013-02-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번호:광주남 2013-11-01), 포장공사업(등록번호:광주남 2013-14-01)
2. 양도 예정일 : 2025년 8월 29일
3.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1) 기 한 : 2025년 7월 25일~2025년 8월 26일
   2) 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458(마륵동) 드림건설 주식회사(대표:채명순) ☎ 062-367-6697
4. 당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분할법인(양도자) :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458(마륵동) 드림건설 주식회사 대표 채명순
   분할신설법인(양수자) :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458(마륵동) 주식회사 디앤티건설 대표 채명순

2025년 7월 25일

주식회사 디앤티건설 대표이사 채명순
드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명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홍상(610518-1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호동로15번길 94, 201호 (용봉동)

피상속인 망 김홍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느단4091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25일

• 상속인 : 김도림(920619-1XXXXXX) 대구 남구 자유5길 61-53(대명동)
• 신고기간 : 2025. 7. 25. ~ 2025. 10. 4.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도림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금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2025년 07월 24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의 재산, 부채 등 "갑"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갑"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477
대표이사 배 수 경

"을" 금아이엔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로 19(연향동)
공동대표이사 조영희
공동대표이사 배홍철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금아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각각 2025년 07월 24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의 재산, 부채 등 "갑"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전문1종설계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갑" 강부건설이엔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477
대표이사 배 수 경

"을" 금아이엔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2로 19(연향동)
공동대표이사 조영희
공동대표이사 배홍철

금아이엔지 주식회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